

이재명, 피습 15일만에 당무 복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등이 16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이재명 대표 정치테러 은폐, 축소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 민주당 최고위 주재 총선 준비·민생 살리기 주력 숙제 산적... 첫 메시지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흥기 피습 사건 보름 만인 17일 당무에 복귀한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내일 최고위 회의 주제를 시작으로 당무에 복귀한다"며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 이어서 인재 활영식을 주재하고 총선 준비와 민생 살리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의 몸 상태에 대해 "많이 회복한 것으로 안다"면서 "현장 일정에 대한 건 아직 거론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이 대표의 재판 출석 일정에 대해선 "그것까지 얘기를 나눈 건 없다"면서 "법원은 법원의 일정이 있지 않겠나. 서로 변호사들과 상의할 결론 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김모(67) 씨가 휘두른 흥기에 왼쪽 목을 찔리는 습격을 당해 입원했다가 8일 만인 지난 10일 퇴원했고, 자택에서 회복 치료를 해왔다. 그는 지난 9일 현근택 민주당연구원 부원장의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 당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

하는 등 회복 기간에도 주요 당무에 대해 의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대표가 당무에 공식 복귀하면 비명계(비이재명)의 집단 탈당과 잇단 공천 잡음, 선거제 개편 등 당내에 쌓인 과제를 푸는데 진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4·10 총선이 석 달도 채 안 남지 않은 만큼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맞서 이슈와 메시지를 주도할 방안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첫 복귀에서 당 대표의 메시지를 관심 있게 봐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민주 연구원 현근택 부원장 총선 불출마

성희롱 논란이 인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 연구원 현근택 부원장이 16일 4·10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 부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친명(친이재명)계인 현 부원장은 비명(비이재명)계 운영진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 중원 지역구 출마를 준비해 왔다. 앞서 한 언론은 현 부원장이 지난달 29일 경기 성남의 한 술집에서 열린 시민단체 송년회에서 지역정치인 A씨의 여성 수행비서 B씨에게 "너희(A·B씨) 부부냐", "너네 같이 사냐" 등의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해당 사건 다음 날 현 부원장은 B씨에게 전화를 10여통 하는 등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논란은 확산했고, 이에 이재명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에 이번 사안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현 부원장이 성희롱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중인 가운데 피해자 동의 없이 실명이 실린 3자 합의문이 언론에 공개돼 2차 가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한 조사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임혁백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위원장도 이번 사안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총선 브리핑

이용빈 "부품기업 R&D 예산 확보 적극 지원"

광주 광산갑 재선 도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속 이용빈 국회의원(민주·광주 광산갑)은 16일 "광주가 청년이 미래를 꿈꾸는 지역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부품기업의 R&D(연구개발) 분야 국가 지원, 산단 활성화를 위한 앵커기업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광주그린카진흥원 국제회의실에서 "미래차 국가산단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추진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미래차 산단과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로 광주지역 발전의 새로운 발판을 확보했지만, 완성차와 달리 자동차부품 산업은 자본·정보·인력 부족 등 삼중고로 미래차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간담회처럼 민·관이 서로 협력해 대안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울산지역과 달리 광주 소재 1차 협력사 중 1조원 매출을 달성한 기업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기업 관계자들은 기업 매출이 이렇다 보니 미래차 전환에 필요한 R&D 분야 투자가 힘들어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의원은 "산중위 활동을 통해 열악한 부품기업의 현실을 짚고 미래차로의 순조로운 전환을 위해 국가 차원의 강력한 지원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다"며 "미래차 관련 인재 육성과 모빌리티 광주미래차전환종합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이준석 "대통령 배우자법 추진... 거부돼도 재발의"

국정개입 견제... 형사소추·뇌물죄·청탁금지법 적용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 중인 개혁신당은 16일 대통령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 및 의전과 관련해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인 개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대통령 배우자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법적 지위 없이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권력을 행사해 오던 관행과 이를 견제할 근거가 없는 부실한 법체계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이 법은 배우자와 가족의 과도한 국정 개입을 견제하는 법이기도 하지만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활동을 양성화하는 계기도 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연방법에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명시하고, 판례상으로도 법적 지위를 사실상 임기제 연방 공무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런 법적 근거가 우리나라도 필요하다라는 것이 개혁신당의 주장이다. 또 개혁신당은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해 형사상 소추의 원칙과 뇌물죄, 청탁금지법 등의 적용을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적용해 각종 뇌물죄 및 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의 주제로 명시하고 형사 소추의 원칙을 천명하겠다"며 "대통령의 배우자와 관련된 부패 범죄와 비위 행위들이 적지 않은 역사를 반면

교사 삼아 양성적 법제화를 통해 투명한 국정 운영을 도모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혁신당은 대통령 배우자의 모든 공적 활동에 대한 기록과 보존,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위원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배우자뿐만 아니라 단체장 부인도 동일한 기준과 동일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선 "개혁신당 구성원 모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대안성하는 바이고 대통령 거부권을 거부하는 입장"이라며 "실령 거부권으로 인해 이번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폐기된다 해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윤재갑 "농어업·교통·일자리 혁명 일으킬 것"

해남·완도·진도 재선 도전

윤재갑(해남·완도·진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6일 오는 4월 총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뒤 출마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민심 잡기 행보에 들어갔다. 박지현 전 국정원장과의 본격적 민주당 공천 경쟁이 시작됐다는 게 지역 정치권 평가다. 윤 예비후보는 "이번 총선은 지방소멸로 해남·완도·진도가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서 미래를 결정짓는 선거"로 "농어업 혁명, 교통혁명,



일자리 혁명을 통해 사람이 모이는 해남·완도·진도를 위한 책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윤 후보는 또 농식품기후 변화대응센터, 국립해양수산물관리 등 굵직한 현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을 했고 해남 간척지 영농 임대료 인상 백지화 및 농·어·가 경영 비용 절감을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선 점도 강조하고 있다. /김지용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MD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창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창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